

속담으로 알아보는 날씨와 기후

3

| 활동 개요 |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개발 의도

- 기후변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한다. 지구적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 평균 기온이 0.6℃ 상승 한 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0.6℃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지구의 규모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기후변화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날씨와 기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둘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의 날씨의 변화를 기후변화와 연관시켜 오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날씨의 변화와는 다른 규모로 이해하기 위해 기후와 날씨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날씨는 농사를 짓는 옛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므로 날씨에 의해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던 시절에 만들어진 속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 목표

- 날씨와 기후에 관련된 속담에 대해서 알아본다.
- 속담 속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파악하고 날씨에 관련된 것과 기후에 관련된 것을 나누어 본다.
-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내용 체계

기후변화의 현상 : 날씨와 기후의 개념 차이

| 내용 | 기후변화 현상 | | | | 원인 | 영향 | 대응 | | 선택 |
|----|---------|--|---|--|----|----|----|--|----|
| 차시 | | | ★ | | | | | | |

차시

3차시/12차시

소요시간

80분

장소

교실 혹은 기후변화교육센터 내 교육실

준비물

지도자용

컴퓨터(인터넷), 속담 관련 책이나 자료집, 활동지 2종(활동자료 2, 3), 세계지도, 점스티커, 속담퀴즈(활동자료 1)

학습자용

노트, 필기구

흐름도

도입
(20분)

- 날씨와 기후에 대한 간략하게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전개
(40분)

- 속담을 찾아보고 날씨와 기후에 따라 분류해 보기

마무리
(20분)

-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속담 만들어 보기



| 활동 내용 및 방법 |

1. 도입(20분)

(1) 날씨와 기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참고사항]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날씨는 짧은 주기로 변하지만 기후는 위도, 바다와 육지의 분포, 지형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 기후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장소에서는 일정한 것이 보통이다.

[활동상세] 세계지도를 준비하고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지구의 기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 각 사이에 하나의 점을 찍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하나만 해 보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점을 다 찍어 본다. 하나의 점이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설명한다. 나중에 지구에 점을 다 찍었을 때 사용한 점의 개수를 세어 본다. 우리나라의 기온만 올릴 때는 1개만 필요했으나 지구 전체의 기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 270개의 점이 필요하다. 270개의 점을 찍었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평균 1개 만큼의 온도만 오르게 된다. 그만큼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 1도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사항] 학습자 스스로 날씨와 기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날씨와 기후에 대해 들어보고 어느 부분에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2) 날씨와 기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유의사항]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기후에 대해 알기 어려울 것이며 대개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도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누기보다 함께 이야기 하며 기후와 날씨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후'라고 하는 것이 매일 일어나는 소규모의 기상 활동 결과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큰 규모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예시] 날씨는 특정한 시간대의 기상 현상을 말하며 기후는 같은 장소에서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소나기가 갑자기 오는 것은 날씨의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장마철에 비가 오는 것은 기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날씨 | 기후 |
|-----------|------------|
| 소나기가 오는 것 | 장마철 |
| 맑은 날씨 | 계절의 변화 |
| 산들바람 | 핀현상에 의한 바람 |

(3) 우리 주변에서 날씨에 관련된 속담이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해 본다.

[유의사항] 날씨에 관련된 속담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시작하여 특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개구리가 올면 비가 온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와 같은 속담은 잘 알고 있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다.

[활동상세] 학습자들이 속담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속담의 키워드를 뺀 부분을 이야기해 주며 퀴즈풀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날씨에 대한 표현을 배우며 날씨에 관련된 속담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활동자료 1]

2. 전개(40분)

(1) 모둠을 나누어 인터넷과 책을 이용하여 날씨나 기후에 관련된 속담을 찾아본다.

[유의사항] 인터넷에는 날씨나 기후에 관련한 다양한 속담이 정리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직접 책을 통해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도 가능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도자가 미리 준비한 책이나 자료집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실제로 속담집을 통해 찾을 경우 날씨를 비유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미를 따진다면 날씨와 관계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이런 경우 학습자끼리 협의하여 선택한 속담이 왜 날씨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사항]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활용할 경우 예를 들어 ‘장마’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속담 및 관용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준비물] 컴퓨터, 속담 관련 책, 속담을 모아 놓은 자료집 [활동자료 2]

(2) 찾은 속담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나누어 본다.

[유의사항] 날씨에 기압·기온·습도·바람·구름의 양·구름의 형태·강수량·일조 등의 기준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속담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침비는 우산이 필요하지 않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등의 속담은 날씨/비에 관한 것으로, ‘곡식이 병난다’, ‘바람이 계속 불면 비가 온다’ 등은 각각 기후/바람, 날씨/바람에 관한 속담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유의사항] 활동지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날씨에 관한 내용인지 기후에 관한 내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속담이 현상을 비유의 대상으로 썼을 경우에도 의미에 따라서는 날씨의 변화를 비유한 것인지 기후 현상을 비유의 대상으로 쓴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의논하여 날씨와 기후를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예시]

| 속담 | 구분 |
|------------------|--|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날씨이다. |
| 곡식이 병난다. | 편현상에 의한 건조한 바람의 피해를 말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기후이다. |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자연의 속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단순 비를 사용했을 뿐 지속적인 규칙성은 없다. 따라서 날씨이다. |



(3) 찾은 속담 자료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비교하여 본다.

[유의사항] 속담을 아는 것 뿐 아니라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여 날씨와 관련한 조상들의 생활을 엿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한 속담이 만들어졌으며 조상들은 어떻게 날씨의 변화에 반응하였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4) 기후와 관련한 속담이 있는지 알아본다.

[유의사항] 기후에 관련한 속담은 날씨에 관한 속담에 비해 찾기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후라는 것은 3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날씨의 평균치 즉 같은 장소에서 일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속담이 만들어지는 오래 전에 그 이전의 날씨 상태에 대해 알고 변화하는 날씨 상태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속담이 많지 않은 이유와 오늘날은 기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5) 나누어 본 속담 중에 기후에 관련한 속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유의사항] 기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담 안에서 그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양도 적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이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찾은 속담을 토대로 하여 기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속담을 찾아 볼 수 있다.

(6) 찾은 속담을 이용하여 의미를 바꾸어 기후와 연관 지어 이야기해 본다.

[유의사항] 기존에 있는 속담도 시대가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의미가 바뀌어 가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이미 찾아놓은 속담 중 현재 문화에 맞추어 의미를 재구성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예시]

| 새로 만든 속담 | 뜻 |
|-----------------------|--|
| 봄은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 최근에는 기후가 급변하여 봄이 짧아진 것을 이야기한 것 |
| 기상청장 동은 개도 안먹는다 | 일기 예보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 |
| 에어컨 켜 놓이 선풍기 켜 놓 나무란다 | 본인이 더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적게 쓰는 사람을 나무란다는 뜻 |
| 작년에 왔던 왜가리 엉덩이가 무겁다 | 왜가리는 철새로 계절이 변하면 떠나야 하지만 기후가 따뜻해져서 이젠 텃새처럼 되버렸다는 뜻 |

3. 마무리(20분)

(1) 날씨와 기후라는 주제에 맞추어 현재에 맞는 속담을 만들어 본다.

[유의사항]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양식은 속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속담의 전제 조건에 대해 우선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만든 속담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단편적인 날씨의 변화에서 지구 전체의 기후에까지 확장되는 기회를 갖는다.

(2) 각자가 만든 속담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유의사항] 학습자들이 만든 속담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단편적인 날씨의 변화에서 지구 전체의 기후에까지 확장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현재 문제로 생각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문화로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 활동자료 |

[활동자료 1] 속담 퀴즈

| 다음에 들어갈 낱말을 맞춰주세요. | |
|--|-----------------------|
| ○ 제비가 낮게 날면 ()가 내린다. | 雨 |
| 이것이 올 무렵에 제비의 먹이인 곤충들이 낮게 날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제비도 낮게 난다. | |
| ○ 겨울이 지나지 않고 ()이 오랴 | 春 |
| 세상일에는 무엇이냐 다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이니,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순서를 밟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뜻 | |
| ○ ()가 찾으면 천둥 친다. | 電 |
| 무슨 일의 징조가 자주 보이면 결국 그 일을 당하고야 만다는 뜻 | |
| ○ 서울 놈은 ()만 오면 풍년이란다. | 雨 |
| 서울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혀 알지 못함을 비웃는 말 | |
| ○ 서편에 ()서면 개울너머에 소매지 마라 | rainbow |
| 서편 하늘에 이것이 생기면 비가 많이 올 징조라는 말 | |
| ○ 어느 ()에 비가 올지 | 雲 |
|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뜻 | |
| ○ 삼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달 ()에는 못산다. | rainy spell in summer |
| 가물 때는 그래도 견뎌도 이것에는 견디기 어렵다는 말 | |

3

날씨와 기후에 관련된 속담을 찾아 정리해 보자

[illegible]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읽기자료

◎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

옛날 어른들은 풍년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해 농사가 잘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보았죠. 그 가운데 눈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기로 해요.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 뿌리가 썩지 않고 벌레가 뿌리를 갉아 먹지 않아 보리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생겨났죠. 한겨울 폭설에 길이 끊겨 마을끼리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도 눈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 풍년을 기대했죠.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이 부족하던 그 시절에 보리는 절대적인 양식이었죠. 미리 비축해 둔 보리쌀 한 자루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소중한 먹을거리였으니까요. 그러니 보리 풍년이야 말로 그 당시 서민들의 크나큰 소원일 수밖에요.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되는 이유는 농사가 잘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겨울철 내내 내린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수조건입니다. 즉 물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나 댐이 많이 건설되어 있고 농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설령 가뭄이 들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시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겼답니다.

출처 : 장하나, 속담으로 배우는 과학교과서.

◎ 오뉴월 소나기는 소 등을 다룬다.

이 속담은 소나기의 국지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소나기를 피해가라’는 말을 들어보았는지요? 소나기는 보통 한 시간 정도 세차게 퍼붓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잠깐 동안만 피해가면 비를 맞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소나기를 순간적이고 일회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소나기의 성질을 반영한 다른 속담들도 참 많습니다. ‘오뉴월 소나기는 말 등을 다룬다.’, ‘오뉴월 소나기에는 달는(달리는) 말 한쪽 귀는 젖고, 한쪽 귀는 안 젖는다.’, ‘오뉴월 소나기는 소 등을 두고 다룬다.’ 등.

이것들은 한여름에 내리는 소나기는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성질(국지성)이 매우 강해, 말의 귀 뿐만 아니라 소나 말의 잔등도 비를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시 속담들은 소나기의 국지적 성질을 과장하여 생겨난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꽤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이어서 집중 호우 같은 기상 현상도 국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지역별로 날씨 차이도 크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항상 생기는데, 이것은 좁은 지역 안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기 예보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도 더욱 커지는 거죠.

출처 : 장하나, 속담으로 배우는 과학교과서.

[참고자료 2] 관련 속담 자료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시원찮게 오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게 젖는다는 말이니, 조금씩 없어지는 줄 모르게 재산이 준다는 뜻
- 가루 팔러 가니 바람이 불고, 소금 팔러 가니 이슬비 온다.
 - 세상일이란 잘 안 될 때에는 공교롭게 빗나가는 수가 많다는 뜻
- 가을바람이 새털
 - 가벼운 새털이 가을바람에 힘없이 휘날린다는 뜻으로, 꾀없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말
- 개미가 거동하면 비가 온다.
 - 개미떼들이 길에 많이 쏠아져 나와 일을 하면 비가 올 징조라는 뜻
-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라
 - 세상일에는 무엇이나 다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이니,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순서를 밟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뜻
-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 한다.
 - 못된 자가 저보다 나은 이를 도리어 트집 잡고 나무란다는 뜻
-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 늦은 봄철인 곡우 때 가뭄이 들면 그 해는 한해로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말
- 깐깐 오월 미끈 유월
 - 5월 달은 해가 길어 더디 간다는 뜻이고, 6월 달은 해는 짧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어느 틈에 가는지 획 지나가 버린다는 뜻
- 녁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맑았으면 한다.
 - 사람은 일기에 대하여 자기 위주로 생각하여 제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뭄 끝이라도 비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
-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다.
 - 뜻하지 않은 큰 재앙을 당한다는 뜻
-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 남풍에는 대개 비가 오므로 남풍만 불면 게가 겁을 먹고 내 눈을 빨리 감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속담의 뜻은 음식을 어느 곁에 먹었는지 모를 만큼 빨리 먹어 치우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다.
 - 메뚜기도 오뉴월에 한창 성하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누구나 다 운과 기회가 있다는 뜻



- 바람도 지난 바람이 낫다.
 - 사람은 무엇이나 과거의 것을 더 좋게 여긴다는 뜻
- 바람이 불다 불다 그친다.
 - 어떤 불행이나 재앙도 결국은 그친다는 뜻
-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지
 - 어떤 방편을 이용할 수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
- 번개가 잦으면 천둥을 친다.
 - 무슨 일의 징조가 자주 보이면 결국 그 일을 당하고야 만다는 뜻
-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
 - 성질이 몹시 급한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 봄 첫 갑자일에 비가 오면 백리중에 가물다.
 - 봄철 들어 첫 번째 갑자날에 비가 오면 오랫동안 가물 징조라는 말
- 비 오거든 산소 모종을 내어라
 - 네 조상 산소가 잘못 들어서 너 같은 못난 자식을 낳았으니 비 오거든 모종하듯 산소를 파 옮겨 다시는 너 같은 자식을 낳지 않도록 하라는 뜻
- 비 오는 날 나막신 찾듯 한다.
 - 몹시 아쉬워서 찾는 다는 뜻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비가 온 뒤에 땅바닥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어떤 풍파가 있은 후에 일이 더 단단하게 여물어지는 것을 비유한 말
- 삼각산 바람이 오르락 내리락
 - 출입이 잦으며 조심성이 없이 드나들 때 하는 말
- 삼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달 장마에는 못산다.
 - 가물 때는 그래도 견뎌도 장마에는 견디기 어렵다는 말
- 서울 높은 비만 오면 풍년이란다.
 - 서울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혀 알지 못함을 비웃는 말
- 서편에 무지개가 서면 개울 너머에 소매지 마라
 - 서편 하늘에 무지개가 서면 비가 많이 올 징조라는 말
-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 해마다 소한 때는 몹시 춥다는 말

-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 집에 찾아온 손님은 빨리 돌아가 주는 것이 좋고 비는 많이 와야 농사에 좋다는 뜻
-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뜻
- 여름비는 잠비, 겨울비는 떡비
 - 여름에 비가 오면 낮잠을 자게 되고 겨울에 비가 오면 떡을 해 먹는 다는 말
- 오뉴월 더위에 암소 뿔이 물러 빠진다.
 - 더위는 오뉴월이 가장 심하다는 뜻
-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
 - 춥던 겨울 날씨도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말
-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
 - 처서날 비가 오면 뜻밖의 재앙이 들어 흉년이 든다는 뜻
- 추풍낙엽
 -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져 흩어지듯 형세가 몰락한 것을 이르는 말

출처 : 권순우, 한 권으로 읽는 한국의 속담.



[참고자료 3] 속담을 통한 교육 방안

속담은 민중의 인생 경험을 교훈적이거나 풍자적으로 전하는 문화 어구로서, 그 속에 한국민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등이 담겨 있다. 속담은 내용 파악을 위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포함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상황이나 자연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게 된다.

속담은 어떤 사실을 비유적으로 서술하는 데 쓰이는 관용어구로 비유의 기능 이외에 부차적으로 교훈적인 혹은 풍자적인 기능을 갖는다(심재기 외, 1986). 일반적으로 속담의 필수적 요건으로 관용성, 비유성, 교훈성 또는 풍자성을 들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특징으로 비속성, 운율성, 상황성 등이 있다.

속담을 통해 문화를 살펴볼 때의 세 가지 유의점

첫째, 일반적으로 속담은 보편적인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지만, 몇몇 속담은 상황 논리를 담고 있어서 어떤 속담의 존재가 곧 그 속담 사용자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담은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속담이 우리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할 때, 속담이 나타내는 문화가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공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한 문화권내에서의 문화가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셋째, 문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속되기도 하고 변화를 격기도 하듯이 속담에 반영된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도 발생 시기와 사용 당시의 속담 사용자들에게 다른 공감도를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안경화, 서울대학교,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서울대학교

[참고자료 4] 개념 설명

◇ 날씨 [weather]

임의의 때에 나타나는 종합적인 기상 상태를 말한다. 보통 기압·기온·습도·바람·구름의 양·구름의 형태·강수량·일조 등을 나열해서 표시한다. 국내외에서 교환되는 일정 시각에 관한 일기예보에는 이것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국제적인 일기도에서는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한, 구름이 없는 '00' 상태에서부터 천둥이 치는 '99'까지 100종류의 기호로 표시하고 있다.

◇ 기후 [氣候, climate]

어떤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정 기간의 평균 기상 상황으로, 대기의 종합 상태 또는 대기 현상의 적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장소에서는 일정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후도 엄밀히 말하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라는 긴 주기를 가지고 변화되어 간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30년 동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개 온도·강수량 및 바람과 같은 지상 요소들인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후란 통계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기후시스템의 상태를 말한다. (기상청)

기후의 영어명은 경사 또는 기울기라는 뜻의 그리스어 klima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을 지구의 태양에 대한 경사라고 생각하면, 지구상의 위도 및 지형에 따르는 지리적 차이와 시각에 따르는 시간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 지리적 차이는 지후(地候), 시간적 차이는 시후(時候)라고 하는 것으로 대응된다. 기후는 서양적인 의미로는 지후, 동양적인 의미로는 24절기·72후(候) 등 시후의 뜻이 강하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후라는 말 속에는 양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란 지구상의 특정한 장소에서 매년 순서를 따라 반복되는 대기의 종합상태 또는 대기현상의 적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장소에서는 일정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후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라는 긴 주기를 가지고 변화되어간다.

이와 같은 기후변동의 원인을 들어보면, 태양에너지 자체의 변동에 의한 것, 태양 거리에 관련된 변동, 행성에 의한 것, 지구상의 조석현상으로서의 변동, 위성간(衛星間) 공간의 변화에 의한 것, 지구자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 인위적인 변화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위적 변화이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변화는 환경오염에 의하여 지배되며, 그 중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이산화탄소의 증가, 대기혼탁도의 증가, 해양오염의 영향, 자연개조의 영향, 고공비행에 의한 운량(雲量)의 변화 등이다.

어느 지점의 기후는 한 화합물이 여러 원소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각종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기후요소(氣候要素)라고 하며, 기후요소는 기온·강수량·습도·바람·증발·일조(日照)·일사(日射) 등이다. 그 밖에 대기 중의 미세먼지의 양, 자외선의 세기 등도 중요한 기후요소이다.

기후요소에 의해 기후를 구분하여 그 분포나 1일 및 1년 중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 지리적 원인에 의해서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등온선으로부터 기온의 분포에는 위도나 고도가 중요한 원인이고, 이 밖에 위도나 고도가 같아도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나 지형 등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기후인자(氣候因子)라고 하는데, 기후분포를 밝히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그 설명에는 물리적 사고방식이 도입되므로 물리기후학(物理氣候學)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면 기온과 위도의 관계, 기온과 수륙분포(水陸分布)의 관계, 강수량과 고도의 관계 등이 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의 기후인자만이 특별히 강하게 작용하여 특수기후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수륙분포로부터 본 양극단(兩極端)의 경우인데, 대륙의 중심부와 대양상이나 섬에서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기후를 보이고 있어 전자를 대륙기후(大陸氣候), 후자를 해양기후(海洋氣候)라 하며, 고도에 따라 고산기후나 알프스 기후, 위도에 따라서는 열대기후·온대기후 등 각종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기후형(氣候型)이라 한다. 따라서 기후는 기후요소에 의하여 구성되고, 여러 기후인자에 의하여 분포형이 정해지며, 특수 기후형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